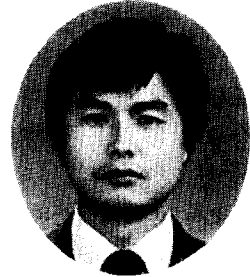


중전기기 특집을 내면서



정 현 교

(강원대 공대 전기공학과 부교수)

현재와 같이 정보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통신, 제어관련 분야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런 결과로 전기공학의 중심분야인 전력공학의 중전기기 분야도 학계 및 산업계에서 비인기 분야로 전락하여 그들의 관심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전기학회가 마련한 중전기기 특집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에는 전기기기의 대용량화 뿐만 아니라 고도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에 응용될 수 있는 중전기기들의 출현이 요망되고 있다. 예를들면,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초대형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등이 필요하게 되며, 대형전동기 또한 응용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신 기술분야인 고속전철, 자기부상열차 및 전자력을 이용한 가속장치등에도 초전도를 이용한 전기기기와 같은 새로운 중전기기의 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같이 전기공학의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전기기 분야가 새로운 설계기술에서부터 첨단기술 까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진부한 분야로만 여겨 관심이 축소되는 현상은 이 분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특집이 전기공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중전기기의 중요성 및 육성과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중전기기 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1년 1월